

〈현씨양웅쌍린기(玄氏兩雄雙麟記)〉에 나타난 상층 여성 겁탈과 대응 문제

공혜란*

<차례>

1. 서론
2. 상층 여성 겁탈 양상
 - 1) 현수문-윤혜빙
 - 2) 악대호-형아
3. 여성 겁탈과 대응의 문제
4. 결론

〈국문초록〉

어느 시대이나 겁탈 사건은 존재해 왔었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을 고려한다든지, 혹은 여성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하여 접근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17·18세기 국문 장편 소설에서는 여성의 겁탈 사건이 종종 노출된다. 본고에서는 18세기 국문 장편 소설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상층부 여성들의 겁탈 사건과 대응 방식에 주목하였다. 피해 여성들은 높은 신분의 여성들이지만 겁탈을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방식이 각기 달랐다.

윤혜빙은 자신을 끝까지 사족 여성으로 인식하며 겁탈 사건 후 남성 가해자인 현수문에게 반발한다. 황족 여성인 형아는 겁탈 사건 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보다는 자신의 욕망 추구를 위해 살고자 한다. 겁탈이 결코 가뻐지 않는 일이지만 두 여성의 겁탈 사건과 각기 다른 대응 방식은 작품에서 흥미를 주는 요소로 그려진다. 마지막으로 〈현씨양웅쌍린기〉는 겁탈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해자의 개념이 없었다. 작품 전반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 대한 위로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으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로 여성 의식의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 현씨양웅쌍린기, 겁탈, 상층 여성, 국문 장편 소설, 여성 의식

1. 서론

겁탈 사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때나 있었다. 그런데 겁탈 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를 규정하고 여성의 인권에 주목한 것은 동서양 모두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공론화시킨 적이 없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야 사회가 여성 인권과 폭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훨씬 더 이전 시대인 17, 18세기 조선조 국문 장편 소설에서 겁탈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지점에 주목하였다.

조선조 17세기에는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국문 장편 소설류가 등장한다. 국문 장편 소설 속에는 분명 작품을 창작했거나 필사했던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몇몇 요소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짧게 끝낼 수 있었던 이야기가 길게 늘어졌을 것이다. 등장인물들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논의의 대상인 <현씨양웅쌍린기(玄氏兩雄雙麟記)>는 18세기 국문 장편 소설이자 <명주기봉(明珠奇逢)>, <명주옥연기합록(明珠玉緣奇合錄)>, <현씨팔룡기(玄氏八龍記)>로 이루어진 4부작 연작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이본으로 존재하는 것이 50여종이며 1919년에 활자본으로 나오기도 했으니 독자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었던 작품이었다.¹⁾

1) 논의의 대상으로 1979년 국학자료보존원에서 발행한 장서각본 <현씨양웅쌍린기>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남성들의 일방적인 겁탈이 두 번 나타난다. 현씨 가문의 장자 현수문이 사족 여성 윤희빙을, 천한 신분의 악대호가 황족 여성 형아를 겁탈한다. 유독 신분이 높은 두 여성이 겁탈 사건을 겪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겁탈 사건은 17세기, 18세기 장편 소설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같은 국문 장편 소설인 17세기 <소현성록>에서는 소운성이 서모 석과의 질녀인 소영을, 18세기 <현몽쌍룡기>에서는 조무가 창기 앵을 겁탈한다. <소현성록>, <이씨세대록> 등에서는 부부이지만 억지로 아내 겁탈이 이뤄진다.²⁾

실제 조선조 사회에서는 겁탈 직전의 여성 항거만 나타내었고, 겁탈 이후의 여성 이야기는 배제시켰다. 겁탈 전 격렬하게 저항한 여성의 이야기만 열녀로 포장해 그려낸 것이다.³⁾ 하지만 <현씨양옹쌍린기>를 비롯하여 국문 장편 소설류에서는 겁탈 사건 속 여성 뿐 아니라 겁탈 이후의 여성도 그려낸다. 비록 조선조 사회가 겁탈 당한 여성의 뒷이야기를 배제했

10권 10책을 택하였다.

- 2) 국문 장편 소설에서는 부부 관계에서도 겁탈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이씨세대록>의 경우 부인이 남편을 싫어해 부부 관계 전 자해를 한다.(탁원정, 『<이씨세대록>에 나타난 비례(非禮)의 혼인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33~63쪽.) 그럼에도 남편이 아랑곳하지 않고 부인을 겁탈하는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나온다. 아내 겁탈은 다음 논의를 참조하였다.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453~487쪽;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309~342쪽;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69~121쪽.
- 3) 겁탈 직전에 항거하며 죽는 것이 조선조 열녀였다. 따라서 겁탈 이후 죄의식을 보이거나 자살하는 여성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조선조 사회는 겁탈 직전의 여성만 언급하지 겁탈 후의 여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1~855쪽;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1~402쪽.

지만 소설 속에서는 겁탈 이후의 여성도 말하고 있다.

우선 작품에서 분석할 겁탈의 범주를 살펴보겠다. 조선조 법질서를 볼 수 있는 <대명률(大明律)>에 따르면 양반이 아닌 노비나 평민이 13살이 안된 여자 아이 혹은 양녀(良女)를 겁탈하면 관련자를 엄벌에 처했다. 또한 겁탈 사건을 여성의 정절을 지키는데 우선하여, 노주간이나 근친간일 경우 참형에 처하고 일반 겁탈은 교형으로 처리했다.⁴⁾ 현재 법적인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불쾌한 언어와 치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反)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⁵⁾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 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겁탈은 억압기제로 남성 인물이 여성 인물에게 가하는 몇 가지 폭력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부부 관계가 아닌, 타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진 겁탈 사건을 다루겠다. ‘아내 강간’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개념으로 법적인 효용성을 지닌 지 얼마 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국문 장편 소설을 읽고 향유했던 독서층이 부부 사이의 겁탈을 지금처럼 ‘아내 강간’이라고 인식 했다가보다는 가정에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 하나로 여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겁탈과 비슷한 용어로 강간, 겁간을 들 수 있겠으나 왕조실록에서 겁탈(劫奪)은 276회, 강간(强姦)은 3회, 겁간(劫姦)은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현씨양용쌍린기>의 겁탈 사건이 그 자체로 심각성을 주지만, 겁탈 사건을 겪은 상층 여성들의 각기 다른 대응 방식은 독자들에게

4) <대명률(大明律)>은 중국 명나라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조선은 건국 초기 형법으로 수용하였다.

5) 현대의 성폭력과 강간의 개념은 다음 저서를 참조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푸른사상, 2007, 1~497쪽; 이미경 외, 『성폭력에 맞서다』, 한울, 2009, 1~255쪽.

게 무겁게 읽혀지지 않고, 흥미를 주었다고 본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두 상층 여성들의 신분과 대응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본 연구, 연작 연구, 작품 성격 규정, 인물들에 대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논의의 대상인 여성 인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서운은 윤혜빙의 신분을 몰락한 사족 여성과 비슷하다고 분석하였고 그 외에 이지하, 옥지희는 여성 의식에 대하여, 최기숙은 현경문-주소저의 부부 관계를 다루었다.⁶⁾

한편 국문 장편 소설에서 겁탈을 다룬 논의로는 장시광 등을 들 수 있다. 장시광은 <소현성록>-<소씨삼대록> 연작,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연작, <성현공숙렬기>-<임씨삼대록> 연작 등 장편 소설에서 나타난 강간 모티프를 고찰하였고 조혜란, 최기숙 등도 겁탈 사건을 분석했으나 모두 <현씨양옹쌍린기>를 다루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작품에 나타난 겁탈 양상을 정밀하게 분석한 논의는 많지 않다.⁷⁾

6) 작품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서운,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신분 위상과 부부갈등」, 『정신문화연구』 38, 정신문화연구소, 2015, 197~219쪽; 김지연, 「<현씨양옹쌍린기>의 단일 갈등 구조와 인물 형상의 관계」,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220~247쪽; 신동훈,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출판사, 2009, 435~467쪽; 심유정, 「<현씨양옹쌍린기>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65쪽; 이지하, 「<현씨양옹쌍린기>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80쪽; 이지하, 「조선시대 이혼법에 비추어 본 <현씨양옹쌍린기>의 여성 의식」,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2015, 87~109쪽; 옥지희,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여성 의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105쪽; 유인선,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개성적인 여인상: 주소저의 인물분석을 바탕으로」, 『관악어문연구』 3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8, 221~236쪽; 최기숙,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 ‘현경문-주소저’ 부부 관련 서사분석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301~337쪽.

7) 국문 장편 소설에서 겁탈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의 강간 모티프 연구」, 『국어국문학』 170, 국어국문학회, 2015, 353~389쪽; 조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현 양상」,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작품이 가진 흥미적인 요소에 집중하여 분석한 논의로는 정혜경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논자는 웃음을 통해 심각한 부부 갈등을 유쾌하게 풀어낸다고 보았다.⁸⁾ 겁탈 사건 후 현수문을 반복적으로 골탕 먹이는 윤혜빙의 행위를 자신을 강제로 훼손시켰고 친정 식구들에게 무례한 남편 현수문에 대한 응징으로 분석하며 현씨 가족들의 즐거운 정서적 반응으로 현수문-윤혜빙의 대립이 무마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윤혜빙이 겁탈 사건을 겪었을 때의 신분과 겁탈 사건 후 밝혀지는 신분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거의 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윤혜빙이 현수문을 골탕 먹이는 장면들이 단순히 강제 훼손이어서가 아니라, 윤혜빙 본인의 사족 여성이라는 신분 의식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보통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이 낮은 여성은 신분이 높은 남성에게 겁탈 당했을 때 강렬하게 저항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현씨 가족들의 즐거운 정서적 반응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무마된다고 봤으나, 본고에서는 작품 후반에 현수문이 현부에 이미 들어온 윤혜빙에게 물리적 폭력을 휘두른 사건에 초점을 두었다. 가부장의 권위를 가진 시아버지 현상서는 현수문의 폭력으로 더 냉담해진 며느리 윤혜빙을 탓하지 아들 현수문을 나무라지 않는다. 가부장의 권위로 윤혜빙이 현수문과 화합하는 것이다. 그밖에 작품의 흥미적인 요소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혜빙은 자신을 사족 여성으로 인식하므로 겁탈 사건의 가해자이면서 자신을 첩으로 여기는 현수문에게 저항한다. 반면 형아는 황족으로서의

2005, 381~411쪽; 최기숙, 「17세기 서사문학을 통해 본 '성'의 문화 기호와 상상 구조」,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33~63쪽; 한길연(2010), 앞의 논문, 69~121쪽; 한국고소설학회, 『한국 고소설과 씨슈얼리티』, 보고서, 2009, 1~405쪽.

8) 정혜경, 「〈현씨양옹쌍린기〉의 서사적 힘: 웃음」,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33~63쪽.

정체성을 버린 상태에서 겁탈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겁탈 사건이 주는 무거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계속 살고자 한다. 따라서 여성 피해자인 윤혜빙과 형아가 겁탈 사건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며 대응하는지, 각각의 주변 인물들은 겁탈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 겁탈 모티프와 여성 대응이 상호 작용하여 작품에서 재미적인 요소로 활용되는 지점을 고찰하겠다.

2. 상층 여성 겁탈 양상

1) 현수문-윤혜빙

겁탈 사건의 피해자 윤혜빙은 12살로 5살에 부모를 잃고 길거리에 유리하다가 장시랑댁 유모 설구가 얻어 키운다. 유모 설구는 윤혜빙을 자신의 질녀라 숙이고 ‘윤혜’라는 이름을 지어 장시랑 댁 행랑에서 기른다. 윤혜빙은 자신의 원래 이름과 부모님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본인이 사족의 여성인 것을 확신하며 자신을 사족 여성으로 여긴다.⁹⁾ 남성 가해자인 현수문은 색(色)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동생 현경문이 여색에 관심이 없으며 부인인 주여교와 불화하는 것에 비해 현수문은 하소저와 잘 지낸다. 하소저는 참지정사 하세걸의 딸로 신분, 인품, 인물이 출중하다.¹⁰⁾ 현수문의 어머니 장씨도 윤혜빙 겁탈 사건이 현수문의 과도한 욕심임을 안

9) “부모명자와 근본을 취 아지못하나 성시는 윤가런줄 기억하고 부친이 금포옥덕로 미양단니며 집이 너르고 빗는던줄 생각흐나 우물속 개고리 굿터여 설구의 깊은 방중의 잠겨서니” <현씨양옹쌍린기> 2권 174~175쪽. (이하 띄어쓰기 필자)

10) “총부 하소저의 옥모염태 쇠락유연흐야 방출의 옷는 깨끗고 겸혀여 성덕이 출어범류혀여 일세의 독부흔 숙네라 츠부 쥬소저의 빅만념태 월궁션으긋고 성덕이 겸비혀여 뼈고 금성녀의 붓그럽지 아니하니 구괴 대열과 망혀여 슬하의 교이흐미 비길딕 업더라” <현씨양옹쌍린기> 1권 4쪽.

다. 장씨는 “현부의 옥질징치 너에게 과분허거늘 농축의 무염허미 이시니 진실로 빅장을 마자도 어엿브지 아니토다”라며 현수문을 탓한다.¹¹⁾

현수문은 베를 짜고 있는 윤혜빙의 뒷모습에 반해 얼굴을 보려고 일부러 기침한다. 윤혜빙의 외모가 뛰어나자 외사촌 형제인 장성기, 장성원에게 윤혜빙을 달라고 한다.¹²⁾ 평소 장형제는 활달하며 농담하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현수문의 청에 쉽게 응한다. 장형제는 윤혜빙의 신분이 자신들의 외종사촌 누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야 현수문에게 항의하지, 윤혜빙의 신분을 몰랐을 때는 그저 행랑살이하는 종과 같이 윤혜빙을 대한다.¹³⁾

윤혜빙을 기른 유모 설구는 장형제의 유모이므로 장형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윤혜빙을 내어준다. 유모 설구는 윤혜빙의 성격상 순순히 현수문에게 응하지 않을 것을 짐작하여 윤혜빙을 속여 원래 살고 있던 행랑에서 서난당으로 거처를 옮기게 한다. 윤혜빙 겁탈 사건을 현수문, 장형제, 유모 설구가 함께 공모한 셈인데 아무리 윤혜빙을 기른 유모 설구라

11) 여기서 ‘농축의 무염함’은 得籠望蜀을 의미하는 말로, 문맥상 현수문이 이미 하소저를 얻었는데 만족하지 않고 욕심으로 다른 여성을 얻으려 한다는 뜻이다. <현씨양옹쌍린기>의 2권에서도 현수문을 두고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 “비록 하시로 은익진중허나 농축의 무염허미 업지 아니 옥을 보면 그릇마다 척오고져 호고 쫓을 보면 가지마다 먹고져 하니”에서 보듯 현수문은 하소저의 부부 관계에서 별다른 불만이 없지만 다른 여성에게 눈길을 준다.

12) “일일은 외구 당시랑티 중의 니르러 말슴허다가 여측허라 나오더니 동넨 너낭의 일 위 소녀 지 등도라 안자 비틀 빠거늘 뒤호로보니 구름듯튼 머리 싸히지헛고 몹은 귀미티 영괴 즈인허지라 싱이 고이히 너져 기춤허고 나아가니 그 녀지 놀르 도라보고 밧비 뵈틀의 느려 늦출 두로허니 옥면쥬순과 년협단순의 빅티승결허니 싱이 대경황홀허여 무리왈” <현씨양옹쌍린기> 3권 169~170쪽.

13) “당싱형데 꾸즈저왈 네 꾀의 쟈져 표미의 옥빙방신을 네 슈중의 도라보닌 연고로 슈부의 중칙을 밧즈오니 엇지 통한치 아니리오 싱이 혼연 쇼왈 므슴일 칙허시더뇨 영미 얼굴이 탐화허 봉접의 버셔느지 못허여 혹즈 노류궁싱의게 도라가드면 윤시 가문을 쟈러버린거시로디 복이 만하 나의 처음으로 나빅 잡는 그물의 걸너 부네 상종함도 너 덕이니 스레를 바들가 가드렸더니 현언이 의외로다” <현씨양옹쌍린기> 3권 226쪽.

할지라도 신분이 낮은 여성의 겁탈에 대해 항거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다. 현수문이나 장형제는 겁탈 사건에 대해 어떠한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는다. 윤희빙의 신분이 낮으므로 겁탈 사건을 그다지 큰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서술자 역시 현수문, 장형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이나 묘사를 하지 않는다. 현수문과 장형제가 작품 전체에서 호탕한 남성들로 나타나므로 이 겁탈 사건은 남성성을 드러내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겁탈 사건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각은 남성의 기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성이 강한 현수문은 단순히 윤희빙과 동침한 것에 기뻐하지만, 색(色)을 멀리하고 문인 기질이 다분한 동생 현경문은 윤희빙 겁탈 사건을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하나며 걱정한다.

연이나 부피 아지못하시니 나중 처치를 잊지코져 하시느니잇고 흑식왈
일는 가장 민망하디 미녀성식은 즙고 영웅도 면치 못하엿시니 초췌왕의 장
괴로도 우미인을 니별홀져 장중의 놀물을 썬려시니 촌네 비록 하천이나 크
게 용속지 아니니 닉 잊지 무심하리오 <현씨양웅쌍린기> 3권 184쪽.

겁탈 사건의 피해자 윤희빙은 혼전 겁탈로 정절이 훼손되었다. 나중 윤희빙의 신분이 추밀부사 윤기화의 딸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현수문의 두 번째 처가 아닌 첩의 신분으로 떨어진다. 본인이 아무리 사족 여성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추밀부사 윤기화와 두부인도 자신의 딸이 첩으로 들어가는 것에 애석해 한다.

부인이 녀의 현혹스의 비첩이 되었던 줄을 듯고 녀을 비록 어드나 항방
의 아름다운 자미를 보지 못하여 남의 직취로 도라가니 잊지 한흠지 아니리

오 추밀이 탄왈 부인은 아직 모르는도다 지취로 마즐진디 무어슬 탄하리오
 마는 현공집의 여츠여츠하여 석일 군상 면진의서 가모하나두물 결달하여시
 니 쇼계 당당이 비첩이 되려니와 저를 죽은가 슬허하더니 이제 비록 위척
나즈나 서낭의 풍치는 여으의 불감땅이라 부인은 과녀치 말나 부인이 더욱
 놀르 용속치 아닌지라 이리 탄홀분시오 <현씨양옹쌍린기> 3권 224쪽.

이렇듯 윤희빙의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이 신분이 낮아지는 것
 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윤희빙은 자신의 신분을 ‘사족 여성’으로 인식하지
 ‘첩’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겁탈 사건 이후 윤희빙이 현수문을 계속해서 거
 부하는 대응들은 흥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만들며 작품의 재미를 더한다.

2) 악대호-형아

형아는 황숙 임강의 딸로 황족이다. 나이 13세에 부마 여옥과 혼인을
 했으나 삼일 만에 여옥이 죽는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술로 여옥은 간
 신히 살아났으나 정상인이 되지 못한다.¹⁴⁾ 형아는 죽었다 살아난 남편 여
 옥을 죽은 것만 못하다 하며 ‘농괴 여싱’이라 부르고 현수문, 현경문 두 형
 제 중 한사람의 비첩이 되어도 한이 없겠다 여긴다.

녀싱의 병든 거동을 디치 못하여 만일 낭현싱중 일인의 비첩이 되어도 한
이 업슬거시로디 능히 하닐업슨 지경이물 탄하더니 기네 츠언을 듯고 대희
 하여 골오디 진평 체 다섯번 개가하여시니 옥슈 진션진미흐 지용으로써 츠

14) “방식 쇼릭를 금하고 삼다의 미음을 화하여 써너으니 식경은하여 인스를 출혀 눈을
 써 방중을 보니 죽언지 칠삭이라 대소렴하엿던터니 거의 다 석어 가니 무섭고 놀느
 온지라 왕은 크게 다항하디 형이 얼굴을 무셔이 너기더니 러싱이 비록 썩여나 중
 청 병인이 되어 주면 먹고 아니주면 굴무며 말을 흐르면 혹 디답하디 인식 점점 흐려
 아모상을 아지못하니 형이 주야 슬허하여 출히 죽고 업슬적만 못하하더니 <현씨
 양옹쌍린기> 3권 281~282쪽.

아 저 병인상공의 헛명만 의지하고 계시리오 <현씨양옹쌍린기> 3권 284~285쪽.

인용문에서 보듯 형아의 시녀는 다섯 번 개가한 진평(陳平)의 처를 들어 형아에게 병든 남편을 떠날 것을 부추긴다.¹⁵⁾ 형아는 거짓 유서를 쓰고 연못에 빠져 죽은 척 한 뒤 시녀와 함께 달아난다. 형아는 황족이지만 남성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에 반(反)하는 인물이다. 조선조 성리학적 질서에서는 남편의 병중에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여 생명을 연장시키고 자신의 정절이 훼손될 위기 앞에서는 스스로 죽는 여성을 으뜸으로 보았다. 형아의 행동은 성리학적 질서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그녀의 타고난 본성으로 병인이 된 남편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츠설 황숙 임강의 일녀 형아는 자식이 탁월하고 지성이 능숙하여 니림보의 구밀복검과 한단주의 간험함미 잇더니 <현씨양옹쌍린기> 3권 280쪽.

인용한 바와 같이 독자들은 형아가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남편 여욕을 버리는 과정을 형아의 타고난 성품 탓으로 여기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형아와 시녀는 길 떠난 지 수일에 한 촌에 머문다. 형아와 시녀는 남복(男服)을 하지 않은데다 형아의 외모가 뛰어났기에 미친한 악대호가 눈여겨본다. 악대호는 형아와 시녀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자게 한 뒤, 한밤중에 몰래 들어간다. 악대호는 형아에게 여기 머물 동안 자신의 미인이 되면 순순히 돌려보내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그는 형아가 자신의 첩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관계를 원한다.¹⁶⁾ 형

15) <사기>의 '진승상세가(陳丞相世家)'에 나오는 진평(陳平)은 한나라의 명재상이다. 다섯 번이나 결혼했지만 남편들이 다 죽어 팔자가 사납다고 여겨진 여성과 진평이 혼인한다.

아와 안방에서 함께 자던 시녀가 깨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지만, 시녀는 다섯 번 개가한 진평의 처 고사를 다시 말하며 형아에게 저항하라고 말하기는커녕 겁탈하려는 악대호의 편을 든다.

닐오디 쇼저는 잠간 놓흔 뜻을 곁혀 대한의 총을 바드쇼셔 역시 큰 변이 아니니 진승상 부인은 그 옛던 스릅이니 잇고 대회 크게 깃저 닐오디 저 여즈의 말이 가장 유리하여 쇼계 비록 금옥도장 가온디 쇼계시나 형세 이의 니르러 내 손의 죽힌 밧기 발명흐나 득지 못흐리라 호고 꺾박하여 정을 닐오니 형이 저 귀신긋든 흥흔 놉의게 옥보방신을 더러이니 거춘 닳과 흥령흔 거동이 슈정궁 이치긋트니 제집 궁노중인들 저러거시 어이 잇스리오 <현씨양옹쌍링기> 3권 288쪽.

인용문에서 보듯 악대호는 형아가 황족인지는 잘 모르지만 형아를 ‘금옥도장 가온디 쇼제’라며 자신과는 급이 다른, 높은 신분의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악대호는 기어이 형아와 동침하고자 한다. 대부분 고소설에서 신분이 낮은 남성이 신분이 높은 여성을 겁탈하려고 해도 어떠한 우연한 사건으로 겁탈 사건을 피하는데, 미천한 악대호의 황족 형아 겁탈 사건은 비교적 드문 일이다. <현씨양옹쌍링기>에서 또 다른 상층 여성인 현경문의 처 주소저가 월청의 도술로 억지로 끌려가 상처한 대호장군의 주모(主母)가 될 번 할 위기를 겪을 때 주소저는 우여곡절 끝에 도망간다. 한 작품 안에서도 상층 여성을 대하는 서술자의 태도가 다른 것이다. 황족인 형아 겁탈 사건은 바로 옆에 시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장치가 없어 특이하다.

16) “그디의 결식을 보고 죽기를 저허야나 니르렀느니 곁혀 일싱 동고코져 흐미 아니라 다만 이곳의 와 머물동안 내 미인이 되면 순히 도라보닝고 그러치 아니면 죽여써 스상지념을 풀니라” <현씨양옹쌍링기> 3권 288쪽.

악대호는 겁탈 후 형아와 주야로 동처하나 본래의 천성을 버리지 못해 강도질하러 밖에 나간다. 이 틈을 타 형아와 시녀는 도주한다. 형아와 도주하는 시녀의 신분은 현경문의 첩 육씨의 유모 능선으로, 계속해서 현경문과 처 주소저 사이를 방해하고자 한다. 육씨의 유모 능선은 음모와 계략에 능한 사람으로 육씨가 혼인 전 현경문의 첩이 되고 싶어 하자 유모 능선이 피를 내어 일부러 현경문이 육씨를 겁탈하려 했다는 모함을 한다. 유모 능선은 육씨가 현경문의 첩이 된 사건으로, 주소저의 아버지 주어사의 미움을 받아 집안에서 쫓겨난다. 이후 궁녀의 종이 되어 궁에서 형아를 우연하게 받게 된다. 서술자는 형아와 함께 도망치는 시녀의 신분을 미리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악대호-형아 겁탈 사건 후에 형아의 시녀가 능선이라는 것을 비로소 밝히고 있다. 이로써 독자들은 악대호-형아 겁탈 사건 때 시녀가 왜 적극적으로 악대호에게 대응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있다.

3. 여성 겁탈과 대응의 문제

국문 장편 소설에서 주로 나타나는 겁탈의 종류로는 주로 시녀 겁탈, 아내 겁탈 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부부 관계가 아닌, 타인으로 이뤄진 겁탈을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서모 등이 장난으로 남성에게 앵혈을 찍자, 해당 남성은 찍힌 앵혈을 없애기 위해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여성을 확김에 겁탈한다.¹⁷⁾ 둘째, 일시적으로 아내

17) <소현성록>과 <현몽쌍룡기> 등에서 나타난다. 국문 장편 소설에서 앵혈은 여성의 정절을 나타낸다. 장난으로 팔에 앵혈을 찍힌 남성은 여성 겁탈 후, 남성 자신의 앵혈이 없어지자 기뻐한다. 기존 논의에서는 이것이 남성 인물의 호방함을 표현한다고 분석하였다.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2010, 53~86쪽; 장시광(2015), 앞의 논문, 353~389쪽; 장시광,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

에게 불만이 있을 때 다른 여성을 겁탈하기도 한다.¹⁸⁾ 셋째, 남성의 음욕으로 겁탈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때는 다른 겁탈들과는 달리 피해 여성이 도리어 성을 즐기는데 추후 겁탈 사건과 연관되어 성을 즐기는 여성들은 곧 처단된다.¹⁹⁾

앞서 기술한 2장의 윤혜빙, 형아 겁탈 사건만 보자면 <현씨양옹쌍린기>가 초반에 무거운 분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겁탈 이후 여성들의 대응을 보면 겁탈 사건이 흥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상층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첫째, 윤혜빙은 겁탈 사건 후 수치심에 못에 빠져 죽는다. 그런데 같은 국문 장편 소설인 17세기 <소현성록>의 소영, 18세기 <현몽쌍룡기>의 창기 앵을 보면 겁탈 사건 후 수치심을 느껴 죽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신분제 사회이므로 서모 석파의 질녀이며 부모가 일찍 죽은 소영, 창기 앵은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남성의 겁탈에 순응한다. 심지어 <현몽쌍룡기>

학회, 2009, 365~410쪽; 정선희(2007), 앞의 논문, 453~487쪽;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始原)』,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53~185쪽; 조혜란, 앞의 논문, 381~411쪽.

18) <명주보월빙>, <임씨삼대록> 등에서 나타나는데 다음 논의를 참조하였다. 장시광(2015), 앞의 논문, 353~389쪽; 장시광(2008), 앞의 논문, 309~342쪽; 장시광, 『운명과 초월의 서사: <임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145~182쪽.

19) <성현공숙렬기>, <임씨삼대록> 등에서 나타나는데 다음 논의를 참조하였다. 장시광(2015), 앞의 논문, 353~389쪽; 장시광,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성격과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2007, 7~37쪽;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공주/군주 형상화와 그 의미: 부부관계 속 여성의 감정과 반응 양상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5, 225~258쪽; 한길연,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고전대하소설 속 탕녀 연구: <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97~234쪽.

의 창기 앵은 자신이 침이 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반면 윤희빙이 물에 빠지는 일련의 행위는 사족 여성의 정체성과 연관된다. 윤희빙은 자신을 사족 여성이라 여겼기 때문에 정절 훼손 차원에서 죽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윤희빙 겁탈 사건은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수문과 현경문, 장형제, 유모 설구가 달려와 윤희빙을 건져 내어 살리면서 겁탈 사건의 무게는 조금씩 사라진다. 물에 빠진 윤희빙을 건져내 당장 숨을 쉬게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동생 현경문에게는 윤희빙의 목숨보다는 형 현수문과 동침한 여성에게 과연 침을 놓아도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현경문이 침을 놓는 부위가 난처하다고 망설이자 현수문이 “정교(正校)에도 아자미가 익수했을 때 손을 잡아 건지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형제간의 대화는 목숨이 위험한 장면을 읽는 독자들의 긴장을 약간 풀어준다.

주변 인물인 현경문의 아버지 현상서는 윤희빙 겁탈 사건으로 아들 현수문에게 매를 들지만 이것도 현수문이 아우 현경문을 놀리는 장면과 연결된다. 겁탈 사건으로 노한 현상서가 두 아들을 동시에 벌하지만 겁탈 가해자 현수문을 바로 때리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려 했다는 것과 처를 박대한다는 이유로 동생 현경문을 먼저 때린다.²⁰⁾ 뒤에 이 장면을 두고 현수문이 아우 현경문에게 농담을 던진다. 즉 작품의 서술자가 매를 맞는 장면을 그리기는 하나 농담거리가 될 만한 요소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겁탈 사건에 대한 징계를 심각하게 묘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 “네 죄 가히 다다릴빅 아니로되 짐죽흐미 잇느니 열혼 아비 속이려하던 죄오 이십장은 어진 처자를 박히하여 혼몽흐고 진잉박헝흐미 태심흐니 십분지일로 즘간 다스리로라 미마다 고출하여 임의 삼십장의 니르미 한님이 본디 악질귀글로 중형을 당흐미” <현씨양웅쌍린기> 2권 195쪽; “혹시 미쇼왈 나는 빅장을 마즈도 가흐거니와 으은 형의 연고로 제 죄오로 삼십장을 마즈니 도로혀 우읍도다” <현씨양웅쌍린기> 2권 199쪽.

무엇보다 현수문의 주변 인물들은 윤혜빙 겁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윤혜빙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윤혜빙이 현부로 들어오는 과정은 간단하다. 현상서의 성격이 관홍하고 윤혜빙이 혈혈단신 의지할 곳이 없음을 불쌍하게 여겨 현수문에게 명해 윤혜빙을 현부로 데려오게 한다. 현수문의 외숙부 장시랑도 현수문이 매를 맞을 때 들어와 현상서를 말리며 윤혜빙을 첩으로 들이도록 권한다. 현수문의 어머니 장씨 역시 물에 빠진 윤혜빙의 상태가 어떤지 물으며 년지시 보살핀다. 17세기 <소현성록>의 소영과 18세기 <현몽쌍룡기>의 창기 앵, 모두 겁탈 사건 이후 바로 가해자 남성의 첩이 되지 못하고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첩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겁탈 사건 후 윤혜빙이 현부에 쉽게 들어오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²¹⁾ 즉 윤혜빙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아버지 현상서, 시어머니 장씨, 외숙부 장시랑이 윤혜빙을 첩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수문의 주변 인물들은 윤혜빙이 첩으로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지만 정작 윤혜빙은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한 유모 설구에게 원망 섞인 언사를 하며 자신을 첩으로 대하는 현수문을 거부한다.²²⁾ 그럼에도 현수문은 윤

21) <소현성록>의 소영은 소운성에게 겁탈 당한 후 바로 첩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소운성이 혼인하기 전에 겁탈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소운성이 혼인하고 난 뒤 소영을 데리고 있던 석파가 소운성의 아버지 소현성과 어머니 석씨에게 소영을 첩으로 들이는 일을 말하지만, 소현성과 석씨는 달가워하지 않는다. 소현성의 누이 월영 앞에서 석씨는 소영을 두고 한때 지나가는 인연이라 말한다. 소운성의 할머니 양부인의 의견이 소영을 첩으로 들이자고 해 마지못해 소현성이 허락한다. <현몽쌍룡기>의 창기 앵도 겁탈 사건 이후 한참 뒤에야 첩으로 들어온다.

22) 물에서 건져진 후 윤혜빙은 현수문을 탕자라 칭하며 자신이 사족인데 부모님을 다시 만나면 무슨 면목이 있냐며 격렬하게 대항한다. 현수문과 같이 겁탈 사건을 도모했던 유모 설구에게도 서운함을 표출한다. “은피 엇지 날로 흐여금 이 경계를 당케흐노 내 비록 즈시 싱각지 못흐나 결단코 상한 천취 아니어늘 이제 탕즈의 슈중의 욕을 보와시니 부모를 차즈도 하면목으로 스라시리오 내 임의 물가온디 몸을 더졌거늘 곱터여 슬오니 전자의는 비록 은피는 금츠시흐여는 도로혀 원이 도라가는도다” <현씨 양몽쌍룡기> 2권 189쪽.

혜빙의 친정 아버지인 추밀부사 윤기화나 윤혜빙의 세 오라비들 앞에서 윤혜빙을 사족의 여성으로 대하지 않는다. 현수문은 일부러 아무도 모르게 윤부에 들어가 윤혜빙을 보고, 현수문을 본 윤혜빙은 놀라 기절한다. 윤부에 몰래 들어간 사건을 두고 현상서는 현수문에게 매 20대를 치지만 현수문은 자신이 윤부에 들어간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한다.²³⁾

윤혜빙은 현수문의 첩으로 현씨 가문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세 번 현수문을 속인다. 첫 번째 속임은 윤부에서 치루는 혼인 첫날밤 이뤄진다. 윤혜빙은 본인을 대신해 인물이 흉측한 귀형녀를 신방에 들여 보낸다. 귀형녀와 동침한 사건이 다음날 밝혀지면서 현수문은 화가 나 윤혜빙을 잡으려 한다. 현수문을 제외한 윤부의 사람들은 귀형녀의 행색과 현수문의 화내는 모습을 보고 웃는다.

두 번째 속임은 이모부 박자사가 있는 곳으로 떠나는 이모의 행차에 윤혜빙이 함께 해 이뤄진다. 이를 현수문이 눈치 채고 윤혜빙이 탕을 가마를 현부에 데려오지만 가마 속에는 다른 여성이 타고 있었다. 윤혜빙이 미리 자신이 탄 가마에 다른 여성을 타게 하고 자신은 이모의 가마에 같이 있었던 것이다. 가마 사건도 막상 다른 여성이 내리자 현수문을 제외한 현부의 모든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며 웃는다.

세 번째 속임은 윤혜빙의 이모부 박자사가 기거하는 곳으로 현수문이 사람을 보내 윤혜빙을 잡아오라고 하는 것에서 이뤄진다. 윤혜빙은 현부로 오는 길에 윤혜빙으로 꾸민 허수아비를 대신 가마에 집어넣는다. 허수아비를 윤혜빙으로 착각하고 가마에서 끌어낸 뒤 현수문이 한바탕 소리 지르지만, 허수아비인 것이 밝혀진 후 남녀종들이 다 웃는다. 세 번째 속

23) “어시 형판의 노아가 업디여 우러러 고왈 희의 슈장함미 역명흔죄오 윤가의 드러가문 조금도 죄 아닌가 호오며 다만 윤가 부즈의 교중함미 극히 통히호도쇼이다” <현씨양웅쌍린기> 3권 253쪽.

임도 현부의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알게 된다.

문득 소저 업더지니 병뵈 제 분하를 이기지 못하여 구러지느줄 알고 병뵈 크게 쇼릭하여왈 윤가 출녀는 스스로 죄를 아는다 닉 전일 년소풍경으로 그 덕를 일시 유경하여 임의 잉첩이 되미 분명하다가 스족예를 알미 즈못 불안 하마 쏘흔 늑례를 감동하나 바히 만모하미 업거늘 교만방종흔 뜻이 느리틀 한하니 죄집거늘 감히 규군을 업슈이너겨 전후의 두 번 속인 죄 일관이 통회 하니 엇지 용셔하리오 그 뜻을 즈시니라 <현씨양옹쌍린기> 5권 516쪽.

윤혜빙이 현수문을 세 번 속인 일들은 각각 그 속임이 들어났을 때 보는 사람들이 웃는 것으로 끝난다. 작품 속 제3자들의 웃음은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재미적 요소를 함께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독자들은 작품 초반의 윤혜빙 겁탈 사건을 점점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인하여 탄왈 어느 썸의 철부 속네 간간이 업스리오마는 홀노 유현부의 텃 연흔 성덕문명이 대두홀재 업스디 경문의 복이 박하여 능히 속여 성인을 진 복지 못하니 엇지 탄흡지 아니리오 설파의 천연불감하니 총지 시로이 심식 사오나온중 불효를 탄하더라 말이 그치미 당시중 형데 웃고 유왈 앓가 즈예 초인을 윤미로 알고 세우고 호영하던 일을 싱각하니 절도하올지라 다만 팔 적당뵈되여 일개 으녀즈의게 세번 속으디 다 용렬이 고지드르니 그런 괴관이 업도쇼이다 승상과 부인이 미쇼하더라 <현씨양옹쌍린기> 5권 524쪽.

현수문이 세 번 속은 일은 윤혜빙의 복수담이지만, 세 번의 사건 모두 윤혜빙이 자신의 신분을 사족으로 여겼고 자신을 첩으로 여기는 현수문의 태도에 반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대응이다. 만약 윤혜빙이 자신을 사족 여성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런 대응은 불가능하다.²⁴⁾ 앞서 언급했

듯이, <소현성록>이나 <현몽쌍룡기> 등을 보더라도 신분이 낮은 여성은 신분이 높은 남성 인물의 겁탈 사건을 받아들이지 윤혜빙과 같이 저항하지 않는다. 윤혜빙은 겁탈 후 못에 빠져 자살하고자 하며 첩으로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현부에 바로 흡수되지 않고 남복(男服)을 하여 도망간다. 겁탈로 인한 남성의 폭력에 대해 윤혜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후 시아버지 현상서(현승상)가 윤혜빙에게 여도 십편을 써서 돌아올 것을 권유하자, 비로소 윤혜빙은 현부에 돌아가고자 마음을 돌이킨다. 현수문은 윤혜빙이 자신을 속인 일들에 분하여 현부로 오는 윤혜빙의 행차를 흘트리고 부수어 윤혜빙을 민망하게 만든다. 현부에 돌아온 윤혜빙이 현수문을 계속 냉대하자 현수문은 윤혜빙에게 호박침과 산호 서안을 던진다. 그런데 시아버지 현상서는 이를 두고 아들 현수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윤혜빙의 냉담을 탓한다.²⁵⁾

24) 정혜경은 윤혜빙이 현수문을 세 번 속인 일의 원인으로 겁탈 사건과 친정 식구들을 무시한 점을 들고 있다.(정혜경, 앞의 논문, 33~63쪽.) 이것은 윤혜빙의 신분에 대해 정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논의이다. 신분사회에서는 사회적인 관습으로 인해 신분이 낮은 여성이 신분이 높은 남성 인물의 겁탈에 저항을 못한다. 기존의 연구(장시광 (2015), 앞의 논문, 353~389쪽)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지적한다. 신분이 낮은 여성은 가해자 남성의 첩이 되어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겁탈 사건을 보상 받으므로 겁탈이 교환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현수문이 겁탈 전에 윤혜빙을 유모 설구와 함께 행랑살이하는 시녀 정도로 여기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럼에도 윤혜빙은 처음부터 자신을 사족 여성이라 생각한다. 윤혜빙이 가졌던 사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현수문을 세 번 속이는 복수담이 가능했다.

25) “승상이 윤시의 너모 귀강함을 고이히 너져 일일은 좌위 고요호 썩 윤시를 나오혀 끌오되 너즈는 북어인이니 비록 가뵈 무례방탕하여 몸이 농담 호구의 썩러져다가 다시 복합하여 그러듯 무례치 못할거시어늘 흥물며 슈문이 저일 나히 점고 일시 호신으로 너의 근분을 아지 못하고 떨티하미 이시디 이도그디도록 흥 비례 아니어늘 현뵈 너모 초강하여 전후 세번 속이를 태심이나 이제 임의 레로 만느실진디 피척 화호 흥미 울켜늘 문득 규문의 화기를 일코 치가흔는 범제 문히지계하니 츠는 나의 김히 바라던배 아니라 네 만일 곳치지 아니면 내 쏘흔 별단 거쥬를 니르려리니 주의하여오” <현씨양웅쌍린기> 10권 495쪽. ‘현상서’는 작품 중간에 다시 직책을 받아 ‘현승

작품 후반부에 나타난 시아버지 현상서의 태도는 작품 초반의 윤희빙 겁탈 사건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겁탈 사건 직후 윤희빙이 현수문의 첩이 되기 싫어 현상서 부부 앞에서 “상공의 빈실노 의견을 쇼임흐라 흐신 즉 원컨디 당하의셔 죽어 첩의 잔약흐고 정렬치 못흐 죄를 속흐여지이다”라며 말했지만 현상서는 오히려 윤희빙을 달래면서 잃어버린 부모님을 어떻게 되찾겠냐고 부드럽게 묻는다. 그런데 작품 후반부에서 현상서가 윤희빙에게 여도 십편을 쓴 것과 폭력적인 아들의 편을 드는 것에서 그가 전형적인 가부장을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부장의 권위로 윤희빙은 현부에 돌아오며, 자신에게 호박침과 산호 서안을 던진 현수문에게 더 이상 냉대하지 못한다. 즉 사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충만한 상층 여성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는 냉담할 수 있어도, 가부장의 권위를 갖는 시아버지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라 하겠다. 또한 작품에서는 남성의 폭력에 계속 노출된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가해자와 주변 인물들이 그다지 배려하지 않는다.

둘째, 황족 형이는 겁탈 사건 후 기회를 봐 악대호의 집에서 도망친다. 겁탈 이후의 형이의 행적을 보면 계속해서 현수문, 현경문 형제와 결합하고자 하며 나중 역모 사건까지 가담하게 된다. 서사의 마지막 부분까지 형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악대호의 집에서 나온 형이는 다른 사람의 몸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은신보명단’이라는 약을 먹고 현경문의 처 주소저로 변신한다. 주소저로 변신한 형이는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 일로 형이는 천자 앞에 가 죽게 된다. 하지만 초월적 존재의 힘으로 형이는 천자의 벌을 받지 않고 살아남아 작품 후반부에 다시 현경문의 형 현수문에게 접근한다.²⁶⁾

상이 된다.

26) 본고에서 논의하는 장서각본에서는 음풍이 홀연 불어와 형이를 데려가는 것으로 묘

현수문, 현경문 형제를 향한 형아의 구애는 끊이지 않는다. 조선조 성리학자 질서로 보자면 형아는 병든 남편을 싫어하고 다른 남성과 결합하고자 하는 음녀(淫女)이지만 서술자는 시녀 능선을 죽일지언정 형아를 바로 처단하지 않는다. 황족 형아가 겁탈 사건 후 보이는 대응을 고려해 볼 때 형아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서술자가 욕망 추구형 여성을 작품의 말미까지 흥미 요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혜빙이 자신을 사족 여성이라 인식하는 반면 형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황족 여성에 두고 있지 않다. 형아는 병든 남편을 버릴 때에나 악대호의 겁탈이 이루어지기 전, 두 번 다 시녀 능선에게서 진평(陳平)의 아내 고사를 듣고 그 고사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합리화 시킨다. 진평의 아내는 다섯 번 혼인한 여자로 정절을 고수하는 여성상은 아니다. 형아는 열전의 많은 열녀들처럼 살기를 거부한다. 성리학자 질서를 누구보다 더 잘 지켜야 할 황족 여성이지만 실제 생활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형아는 자신이 황족이라는 자의식이나 병든 남편을 구원하는 열녀의 모습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진평의 다섯 번 혼인한 처와 같이 기회주의적인 가치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겁탈 사건의 피해 여성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 가해 남성에 대한 저항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형아 겁탈 사건을 그린 서술자의 시선은 조선조의 법질서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조의 법질서로 보자면 형아는 정절을 지닌 여성이 아니므로 겁탈 사건이 일어나도 크게 보호해 줄만한 여성이 아니다. 조선조에서는 겁탈 사건을 피해자의 평소 행동거지와 연관시켜 처벌했다. 세종 때 남편

사된다.(장서각본 <현씨양웅쌍린기> 4권 354쪽) 연대본에서는 형아가 가짜 주소지였다는 사실이 천자 앞에서 밝혀진 후 목숨은 건지지만 형아의 아버지 임강왕이 딸을 죽인다.(연대본 <현씨양웅쌍린기> 8권 14쪽) 장서각본과 연대본 모두 형아가 현수문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작품 후반부에 나오므로 장서각본이 서술상 더 논리적이다.

이 있는 궁비(宮婢) 겁탈 사건을 보면 가해 남성은 처음 판결에서 교형을 받았으나 두 번째 판결에서는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피해 여성이 울며 저항했으나 후에 여성이 스스로 가해 남성을 찾아간 점이 두 번째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피해 여성의 겁탈 이후 행적을 음란하다고 본 셈이다. 피해 여성의 겁탈 이후 행동이 가해 남성의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조선조가 보호해 줄만한, 정절을 지닌 여성만 법의 테두리에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⁷⁾

서술자는 겁탈 후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현수문·현경문 형제를 찾는 형아를 비판하지만 정작 형아 자체는 반성이 없다. 황족 형아는 악대호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악대호에게 순응한다. 왜냐하면 남편을 버리고 궁을 나왔으므로 형아가 다시 되돌아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연못에 빠져 자살한 척 하고 유서까지 써놓은 마당에 다시 궁으로 돌아가 봤자 형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다. 형아는 작품 후반에서 계속 현수문, 현경문 형제와 결합을 못하자 역모 사건과 연관되어 조정에 혼란을 가져오는 악인이 된다. 음녀에서 출발했지만 악인으로 캐릭터의 변모가 일어난 것이다.

기존의 겁탈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임씨삼대록>의 옥선군주가 음녀에서 악인으로 변하고 있었다. 오랑캐에게 윤간을 당하고 그 윤간을 즐긴 옥선군주는 형아가 역모를 꾸몄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왕과 반역을 꾀하다 죽는다.²⁸⁾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논의는 국문 장편 소설에서 대부분 겁탈 사건과 관련하여 성을 즐기는 여성이 곧 처단되어 서사

27) 조선조 겁탈에 관한 처벌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1~429쪽; 정태섭, 『성, 역사와 문화』,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1~420쪽.

28) <임씨삼대록>의 옥선 군주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참조하였다. 정선희 (2015), 앞의 논문, 225~258쪽; 한길연(2007), 앞의 논문, 197~234쪽.

에서 사라진다고 보았다.²⁹⁾ 반면 <현씨양웅쌍린기>에서는 작품 초반에 천자에게 잡힌 형아를 바로 처단할 수 있었으나 음풍이 불어와 형아를 건져내어 서술자가 서사 후반부까지 존재하도록 그려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한 가지 더 특이한 지점은 현수문-윤혜빙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데 비해, 악대호-형아 사건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며 악대호 역시 작품 전반에 걸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악대호는 ‘계집 궁노 중인들 저런거시 어이 잇스리오’라며 형아가 궁에서 부리는 시비들보다 못한 존재로 묘사된다. 이 악인형 인물인 악대호가 그 후 서사에 등장하지 않으며 어떠한 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술자가 겁탈 피해자 형아를 벌 받아 마땅한 인물로 설정했기에 가해자 악대호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다. 윤혜빙 겁탈 사건 때는 현수문의 주변 인물들이 윤혜빙을 현부 안에 포섭하려고 했다면, 형아 겁탈 사건 때는 그러한 주변 인물들이 없었다. 따라서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형아의 겁탈 사건을 병든 남편을 버리고 궁을 나온 여성이 받는 인과응보쯤으로 여기게 되므로, 서술자가 음녀로 표현한 형아에 대해서는 따로 동정심을 갖지 않게 된다.

<현씨양웅쌍린기>의 상층 여성의 겁탈 사건은 조선이 신분제 사회임을 고려해 볼 때 상층의 권위를 흔드는 문제와 직결될 수 있지만 작품이 지닌 흥미성, 곧 통속성과 연결되고 있었다. 윤혜빙은 겁탈 사건으로 정절이 훼손되어 신분이 떨어진 상층 여성을, 형아는 상층 여성이지만 겁탈 전에 이미 황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남편에 대한 정절을 버린 여성

29) <성현공숙렬기>의 반연화는 한황에게 겁탈당하지만 그 뒤로는 기꺼이 응한다. <임씨삼대록>의 옥선 군주는 윤간을 당하지만 음란한 여성 인물인 옥선 군주는 윤간 즉 겁탈 사건을 즐기며 오랑캐들의 음욕을 풀어준다. 이후 여성들은 모두 처단당하며 서사에서 사라진다. 장시광(2015), 앞의 논문, 353~389쪽.

을 상징한다. 동일한 계층의 여성이라도 피해 여성의 타고난 성격에 따라 겁탈 사건을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난다. 아쉽게도 두 여성 모두 겁탈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어떠한 심리적인 위로를 거의 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성리학적 질서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겁탈 사건을 꺼냈다는 것만으로도 국문 장편 소설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하나, 겁탈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해자의 인식이 없다는 점, 피해 여성들의 심리적·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목소리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여성 의식의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고 하겠다.

4. 결론

국문 장편 소설 속 여성들은 가문 안에서 다양한 고난을 겪는다. 본고에서 다루었던 겁탈은 가정에서 여성이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었다. 본고에서는 <현씨양옹쌍린기>의 상층 여성들이 겁탈 사건을 겪을 때 당사자의 자기 인식 정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성들의 서로 다른 대응 방식은 자칫 무거운 겁탈 사건을 차츰 가볍게 만들고 있었으며 작품에서 흥미적인 요소로 작용했었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같은 상층 여성이라 할지라도 겁탈 장면이 각기 달랐다. 첫째, 현수문-윤혜빙의 경우 윤혜빙의 신분이 사족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겁탈 사건이 일어났지만 서술자와 독자들은 윤혜빙의 신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 부모님을 어릴 때 잃어버린 윤혜빙은 현수문, 장형제, 유모 설구의 공모로 정절이 훼손된다. 윤혜빙은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사족으로 인식하며 격렬히 대응한다. 둘째, 악대호-형아의

경우 신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다. 형이는 황족의 여성으로 병든 남편을 버리고 궁에서 나와 여성의 복장으로 있다가 자신이 궁에서 데리고 있었던 종들보다 못한 미천한 악대호에게 겁탈 당한다.

겁탈 사건이 무거운 분위기를 가졌다면 그 이후 여성들의 각기 다른 대응들에 흥미 요소들이 발견되므로 독자들은 겁탈 사건의 심각성에 함몰되지 않았다. 첫째, 윤혜빙 겁탈 사건은 윤혜빙이 물에 빠진 후 현수문 형제가 구원하는 장면부터 독자들이 서서히 긴장을 풀 수 있었다. 현수문 주변 인물들도 윤혜빙이 침으로 들어오도록 하며 그다지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윤혜빙은 자신을 끝까지 사족으로 여기며 가해자 현수문을 세 번 속이는 복수담을 펼친다. 이 복수담은 제3자들의 재미를 돋운다. 결국 윤혜빙은 시아버지의 권고, 곧 가부장의 권위로 자신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현수문과 화합한다. 남성의 폭력보다 가부장의 권위에 여성이 훨씬 더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형이는 황족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자신의 욕망 추구를 위해 살고자 하였으며 기회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졌다. 형이는 궁을 나오기 전과 겁탈 사건 후, 다섯 번 혼인했던 진평의 처 고사를 이용해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시킨다. 서술자는 형이의 캐릭터를 작품 초반에서는 음녀로 설정하였다가 작품 후반에서는 역모에 가담한 악인으로 변모시킨다. 즉 욕망 추구형 여성 인물을 작품 전반에 걸쳐 흥미 요소로 활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겁탈이 여성에게는 타인에게 공개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국문 장편 소설이 타 장르에 비해 여성의 은밀한 목소리에 더 집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현씨양웅쌍린기>의 겁탈 사건에서 서술자가 해당 남녀 인물들을 피해자·가해자로 딱히 나누어 보지 않는다는 점, 피해 여성을 위로하는 묘사를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점으로 보아 여성 의식이 충분히 발현되지는 못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현씨양옹쌍린기>, 장서각본 10권 10책.

-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1~855쪽.
- 김서운,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신분 위상과 부부갈등」, 『정신문화연구』 38, 정신문화연구소, 2015, 197~219쪽.
- 김지연, 「<현씨양옹쌍린기>의 단일 갈등 구조와 인물 형상의 관계」, 『민족문화사연구』 28, 민족문화사연구소, 2005, 220~247쪽.
-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2010, 53~86쪽.
- 박 주,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08, 1~406쪽.
- 신동훈,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출판사, 2009, 1~617쪽.
- 심유정, 「<현씨양옹쌍린기>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65쪽.
- 옥지희,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105쪽.
- 유인선,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개성적인 여인상: 주소저의 인물분석을 바탕으로」, 『관악어문연구』 3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8, 221~236쪽.
- 이미경 외, 『성폭력에 맞서다』, 한울, 2009, 1~255쪽.
- 이지하, 「<현씨양옹쌍린기>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80쪽.
- 이지하, 「조선시대 이혼법에 비추어 본 <현씨양옹쌍린기>의 여성의식」,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2015, 87~109쪽.
-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1~429쪽.
- 장시광,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성격과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2007, 7~37쪽.
-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화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2008, 309~342쪽.
- 장시광,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365~410쪽.
- 장시광, 「운명과 초월의 서사: <임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145~182쪽.

- 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의 강간 모티프 연구」, 『국어국문학』 170, 국어국문학회, 2015, 353~389쪽.
-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53~487쪽.
-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始原)」,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53~185쪽.
-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 장편 소설의 공주/군주 형상화와 그 의미: 부부관계 속 여성의 감정과 반응 양상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225~258쪽.
- 정혜경, 「<현씨양웅쌍린기>의 서사적 힘: 웃음」,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33~63쪽.
- 정대섭, 『성, 역사와 문화』,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1~420쪽.
- 조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남성섹슈얼리티의 재현 양상」,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381~411쪽.
- 최기숙, 「17세기 서사문학을 통해 본 ‘성’의 문화 기호와 상상 구조」,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33~63쪽.
- 최기숙,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 ‘현경문-주소저’ 부부 관련 서사분석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301~337쪽.
- 탁원정, 「<이씨세대록>에 나타난 비례(非禮)의 혼인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33~63쪽.
- 한국고소설학회, 『한국 고소설과 섹슈얼리티』, 보고서, 2009, 1~405쪽.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1~402쪽.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푸른사상, 2007, 1~497쪽.
- 한길연,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고전대하소설 속 탕녀 연구: <쌍성봉호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97~234쪽.
-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69~121쪽.

ABSTRACT

The Rape against Upper-class Females and the Correspondences
in *HyunShiYangWoongShangLinKi*

Gong, Hye-ran

The rape incident has been at any time. However, it was not until the modern age that women's human rights were considered and women's victims' position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first. Nonetheless, in Korean long novels written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there are often rape incidents against women. In this paper, this author noted the rape incidents against upper-level women in the *HyunShiYangWoongShangLinKi*, the Korean long novel of 18th century, and ways they responded. The victims were all high-status women, but the ways they accepted and responded to the rape were different.

Yoon Hye-Bing continually regarded herself as a noble female, and resisted against Hyun Soo-Moon, the male assailant. Unlike this, Hyung-A, the imperial family female, tried to pursue her desire rather than to lament her situation after the rape incident. The rape incident is never a light topic, but the rape incidents against the two women and their different ways of responding to them are interesting factors in this work. In addition, *HyunShiYangWoongShangLinKi* has no concept of victims and assailants of the rape incidents. It has a certain limit of consciousness on women because there is no voice of comfort for the women's victims across the work.

Key Words *HyunShiYangWoongShangLinKi*, rape, upper-class female, long-piece family novel, female's consciousness

논문투고일 : 2017.03.31

심사완료일 : 2017.05.04

게재확정일 : 2017.05.15